

ITU보고서, 이동통신·인터넷 지수 '홍콩' 세계 1위

중국의 홍콩지구가 정보통신 산업과 기술의 발전정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이동통신 및 인터넷 지수 평가에서 세계 1위에 올랐다.

ITU가 지난 17일 발표한 '이동통신 세대를 위한 인터넷'이란 제목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순위 1위는 홍콩(65.88점)이 차지했으며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가 2, 3, 4위를 나란히 차지했다. 한국은 종합 평점(100점 만점) 63.42점을 받아 미국(65.04점)과 노르웨이(64.67점)에 이어 7위로 평가됐다.

또 영국,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 9, 10위에 올랐으며, 싱가포르를 핀란드에 이어 13위에, 일본은 포르투갈에 이어 20위를 기록했다.

ITU가 사상 최초로 전세계 200여개국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분야의 종합적인 발전 정도와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이번 조사에 대해 ITU 전략 정책담당 국장인 팀 켈리 박사는 기반시설·사용정도·시장구조 등 3개 분야에 걸쳐 26개 평가기준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지역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수요를 주도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과 일본을 지목하고 구체적인 특징과 차이점 등을 상세히 분석했다.

세계 이동통신/ 인터넷 지수 평가

순위	국가	이동통신/인터넷 지수 (100점만점)	순위	국가	이동통신/인터넷 지수 (100점만점)
1	홍콩 (중국)	65.88	11	캐나다	61.97
2	덴마크	65.61	12	핀란드	61.22
3	스웨덴	65.42	13	싱가포르	60.58
4	스위스	65.10	14	룩셈부르크	58.58
5	미국	65.04	15	벨기에	57.80
6	노르웨이	64.67	16	오스트리아	57.72
7	한국	63.42	17	독일	55.53
8	영국	63.00	18	호주	55.40
9	네덜란드	62.25	19	포르투갈	55.13
10	아이슬란드	62.03	20	일본	54.94

도코모, FOMA의 ARPU 대폭 감소

NTT 도코모는 최근 올 1/4분기 오퍼레이션 데이터를 발표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ARPU(1인당 월매출)가, 전기(2001년도 제 4/4분기)보다 증가했지만, 전년도의 연간 실적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가 되었다.

동사의 휴대 자동차 전화 계약수는, 2001년도의 4078만 3천 건에서 67만 9천 건으로 증가해, 4146만 2천 대가 되었다. 그 중 FOMA는 11만 4500건으로 전기보다 약 2만 5천건 성장했지만, 동사의 2002년도 전망치인 138만 건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음성 이용과 i모드 이용을 포함한 종합 ARPU는 8150엔으로 전기의 8,020엔으로부터 약간 증가했지만, 전년도의 8480엔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했다.

ARPU의 내역으로는, i모드 이용이 전기 1590엔에서 1630엔, 음성 이용이 전기 6430엔에서 6520엔으로 조금 증가했다. 그러나 FOMA의 ARPU는 전기 8430엔에서 7800엔으로 대폭적인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의 PHS에서는, 총 발신 시간 가운데, 데이터 통신이 차지한 시간은 전기 75.5%에서 76.2%으로 증가했으며, 해약율도 전기 3.71%에서 3.27%에 감소해, 데이터 통신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늘어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MCA 리포트, 「적외선 통신 기능이 휴대폰을 바꾼다」

일본의 리서치회사인 엠시에이는 휴대전화의 적외선 통신 기능에 관한 리포트 '휴대폰에 있어서의 적외선 통신의 이용 동향'을 발표했다.

동 리포트에서는, 데이터 통신이라고 하는 종래의 사용법으로부터 변화해 오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모든 캐리어로 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적외선 통신이 가지는 특성으로서는, 각 캐리어의 통신 네트워크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통신비가 무료인 것, 또 지향성이 있기 때문에 유저가 의식적 행동이 필요한 점 등을 들어 결제 서비스 등 개인정보 교환에 향하고 있다고 하는 한편, 이미 제공되고 있는 i모드나 Java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대응하는 필요성이나 유저에게 스트레스를 줄 가능성 등의 디메리트(Demerit)도 지적하고 있다.

향후의 휴대전화 시장에 있어서의 적외선 통신 기능을 탑재한 단말의 보급 예측에서는, 반수 가까이 휴대전화에 탑재했지만, 현재의 휴대전화 계약수의 신장율과 같이, 보급율은 둔화해 나간다고 예측했다. 또 각 캐리어의 동향으로서 NTT 도코모, KDDI, J-폰의 구상을 분석하고 있는 것 외에 도코모의 Cmode(시모드)나, KDDI가 이번 가을로부터 실시하는 크레딧 결제 실증 실험 등, 현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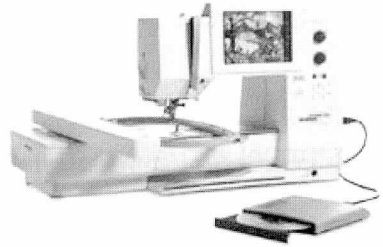
되고 있는 서비스나 예정되어 있는 실험, 해외 기업의 동향 등을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에 동리포트는, 적외선 통신의 라이벌이라고도 할 수 있는 블루투스(Bluetooth)가 보급됐을 경우, 어느 쪽이나 한편이 살아 남는 것이 아니라, 공존해 나간다고 예측했다. 지향성이 있는 적외선 통신은 결제서비스에, 지향성이 불필요한 블루투스는 리모콘으로서 사용되는 가라오케와의 융합 서비스 등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활약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참고 사이트 : http://www.mca.co.jp/pay_contents.htm)

베르니나, 「윈도우즈 CE」 탑재 인터넷 미싱 발표

스위스에 본사를 둔 미싱 메이커 대기업 베르니나의 미국 법인 베르니나 오브 미국은 지난 16일(미국 시간), 미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CE'를 탑재한 세계 최초의 미싱 '아티 스튜디오 200 E'를 발표했다.



이 제품은 칼라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어 모뎀을 경유하여 베르니나의 포털 사이트에 접속, 자수 디자인의 다운로드나, 비법, 유료의 독자 콘텐츠 열람을 할 수 있다.

'아티 스튜디오 200 E'는 종래 기계가 갖추고 있던 자수 도구를 확충하여 스티치(꺾매는 장식) 프로세서 'ART 엔진'에 의해, 오리지널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확대 축소해 꺾낼 수 있다.

또한 PCMCIA 슬롯을 갖추는 것 외에 USB 포토 경유의 CD-ROM 드라이브 접속도 가능하여 내장 라이브러리나 CD-ROM, PC카드, 포털 사이트로부터 도안을 수중에 넣을 수 있다.

독자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디자인도 가능하다. 자수 영역은 14.5 25센치로, 스티치 속도는 1분간에 평균 600바늘.

(참고 사이트 : http://media.berninausa.com/index.php/news_releases?item_id=29)

데이터 퀘스트, 무선 LAN 금년 출하 대수 73% 증가 전망

미국 가트너 데이터 퀘스트(Gartner Dataquest)는 지난 9월 19일 세계 무선 LAN 시장의 향후 전망에 대해 하이테크 시장은 전반적으로 저조하지만, 무선 LAN은 향후 2 자리 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무선 LAN 시장은 올해 출하 대수로 73%, 매상금액으로 26%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또한 내년에도 호조가 계속될 전망으로, 출하 대수는 2002년이 1550만대, 2003년

2650만대, 매상고는 2002년 21억 달러, 2003년 28억 달러가 예측된다.

무선 LAN 시장은 2007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며, 프로페셔널 모바일 PC의 무선 LAN 기능 탑재율은, 2000년의 9%에서 2003년 말까지 약 50%에 성장해 2007년까지는 90%에 이를 전망이다.

무선 LAN 기능은 PC용의 애드 온(add-on) 디바이스로서 구입되고 있지만, 2002년은 전 모바일 PC의 약 10%가 무선 LAN 기능 내장으로 출시되어 2004년에는 이 비율이 31%에, 2007년에는 68%에 높아질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북미 시장이 가장 출하량이 크고, 2002년의 총 출하량의 63%를 차지했다.

가트너는 향후도 무선 LAN 기기의 가격하락과 고속화가 계속될 것이며, 대역폭 요구가 비교적 낮은 소규모의 환경에 있어 특히, '유선 LAN의 대체'로서의 요구가 높아져 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휴대 기기 스팸메일 금지법안 서명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Gray Davis 주지사는 9월 19일, 휴대전화나 호출기에 수신자가 바라지 않는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타호시의 Tim Leslie 의원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효력은 내년 1월부터 정식으로 발효될 전망이다.

Davis 주지사는 “휴대 기기에 있어서 원하지 않는 텍스트 메시지의 범람이 스팸메일, 전자 메일의 레벨에까지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주지사는 이 법 이외에도 지금까지 정크 FAX법을 포함한 2개의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법에 서명한 바 있다.

도코모, 대수시간 125시간의 비주얼 타입 FOMA 단말 「T2101V」 발매

NTT 도코모는, 화상 전화가 가능한 도시바 FOMA 단말 「FOMA T2101V」를 9월 27일부터 발매한다. 이 단말기는 스트레이트형의 보디에 화상 전화 기능을 탑재한 비주얼 타입의 FOMA 단말로, i모드나 i어플리, i모션에 대응해, 지금까지의 FOMA 단말의 대략 배에 해당되는 125시간의 최대대기시간이 특징이다. 중량도, 스트레이트형의 보디를 채용, 비주얼 타입의 단말로서는 최경량의 약 110 g이다. 디스플레이에는 180 176 화소, 26만 2144색 표시의 폴리 실리콘 TFT 액정을 채용했다.

본체 상단부에 장착된 10만 화소 CMOS 카메라는, 화상 전화나 동영상, 정지화면의 기록 외에 약 270번의 회전이 가능해, 회전했을 때 자동으로 카메라 모드로 전환하는 「자동 카메라 기능」이나, 회전한 방향으로 자동 상하 방향 조정이 가능한 「자동 상하 반전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또, 미리 기

록한 동영상이나 정지화면을, 화상 전화의 통화 중에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통화 중 파일 재생 기능」이나, 정지화면이 첨부된 메일을 열었을 때에 정지화면 아래에 메일 본문이 텔롭이 되어 흐르는 「텔롭 메일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화상 전화 기능에서는, 발신자 측의 전화번호를 미리 설정해 두면 해당하는 전화번호로부터의 발신을 자동적으로 착신, 화상 전화를 개시하는 「원격 감시 기능」을 탑재했다. 또 부재 시에 착신한 화상 전화를 기록할 수 있는 「화상 전화 전언 메모 기능」도 탑재하고 있어, 15초까지는 최대 4건, 30초까지는 최대 2건까지 기록할 수 있다.

크기는 145 46 22 mm(높이 폭 두께), 무게는 약 110g. 보디 칼라는 트인크루시르바만되고 있다.

(참조 사이트 : <http://www.nttdocomo.co.jp/new/contents/02/whatnew0920a.html>)

가트너제팬 , 일본 내 2/4분기 휴대전화 판매, 감소 폭 개선

가트너제팬은 9월 27일, 일본 내 제 2/4분기 휴대전화 판매 실적을 정리했다.

판매 대수는 996.1만대로 전년 동기비 9.9%의 마이너스였지만, 제1/4분기의 22.0감소와 비교하면 감소 폭은 개선, 「회복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제1/4분기와 비교에서는, 판매 대수는 11.9%증가했으나 신규 계약은 제1/4분기와 비교해 줄어들었으나, 카메라 단말기를 중심으로 재구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더별로는, NEC(16.5%)가 4분기 연속으로 1위를 고수하고 있으나, NTT 도코모 단말 전용의 마츠시타 통신공업과 샤프로부터 격렬한 추격을 받아 NEC의 쉐어는 계속적으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2위는 마츠시타(15.3%)로, 도코모 전용 제품의 호조로 NEC와의 차이를 크게 줄였다. 샤프(14.9%)는 카메라 단말기로 브랜드를 확립, 격렬한 3위 분쟁으로부터 부동의 3위를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도코모전용 카메라 단말이 호조로, NEC와 마츠시타에 도전하고 있다.

기능별로 보면, 카메라 단말기가 전체의 31.6%에 해당되는 314.6만대에 이르렀다. 또 Java 단말기도 전체의 5할을 처음으로 추월 527.1만대가 되었다. 다만 「카메라 단말의 대부분이 Java에 대응하고 있어, Java는 아니고 카메라를 주목적으로 해 구입한 층도 많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트너 제팬은 동 보고서에서 금년 하반기는 카메라 단말기를 중심으로 호조 추이로, 제3 /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로 변한다고 예측했다. 벤더별 쉐어는 카메라 단말기의 동향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이 계속된다고 밝히고 있다.